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현실인식의 중요성

이 경 구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

目 次

1. 말을 풀면서
2. 도서관 이용의 현재상황은 어떤가
3.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떻게 바뀌었나
4. 말을 맺으면서

1. 말을 풀면서

새로운 첨단 매체의 출현과 이를 운영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 사회는 이미 우리의 생활 문턱에 다가와 있다. 정보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언론의 다소 과장된(?) 제스처로 인하여 온세상이 정보고속도로니 인터넷이니 멀티미디어를 노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것만이 이 시대의 생존논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첨단정보기술이 만들어 낸 너무나도 근사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흥미를 깨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거나 아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정보매체와 기술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도서관에 있어서는 더욱 그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낙후된 도서관을 보다 빠르게 선진화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어느 부분보다도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이러한 방향에 걸맞지 않는 또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이용의 현재상황은 어떤가

모든 사회현상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 문제의 논의와 일정한 과정이 생략된 급격한 변화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칫하면 정상적 과정—그것이 짧던 길던간에—을 거친 발전 속도보다 오히려 늦어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관계설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실 문제는 무엇인가. 이용자는 대체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20여년동안 근무해왔던 현장 사서의 소견으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단지 그들의 자습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해 왔음을 단언한다. 그러므로 자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 아닌 일반인들은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혹 이용한다 하더라도 도서관=공부방이라는 공식에 대하여 무비판적이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50년동안 도서관을 이용하고 인식해 왔던 그들의 사고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출세지향주의, 일류병, 암기위주 입시로 대표되는 열악한 교육제도와 환경이 그랬고, 경제적

궁핍으로 자기 공부방이 없었던 가정환경이 그랬고, 경제편향의 국가정책도 그런 현상을 부채질 하였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러한 국가정책과 사회환경 때문에 단지 환경 좋은 공부방을 조성하는데 골몰하여왔다. 그 결과로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0.3책¹⁾에 불과한 장서량만을 보유하고 있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으로 치부하는 많은 나라보다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는, 도서관 기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2)대비 32%²⁾에 불과한 1,504명의 사서요원만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량과 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수치에 머무르고 있음은 정책 당국조차 도서관 사서를 단지 좌석관리요원³⁾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이용시간 연장과 같은 서비스 개선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이용좌석수가 건물면적이나 시설에 비하여 차고 넘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최소규모는 법적기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으로 볼 때 건물면적 264㎡와 좌석수 60석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전국의 329개 공공도서관을 분석해 보면 건물의 경우는 11개관이 있으나 60석이하의 좌석을 보

1) 讀書振興에 관한 年次 報告書 : 1996. 文化體育部編, p.113

2) 인원산출의 기준은 건물면적(총계 688,777㎡)과 장서수(1,364만책)를 제시한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4,720명이 된다.

3) 전국공공도서관 총 직원수는 4,834이며 이중 사서직은 31%인 1,504명임. 도서관의 사서직 대 비사서직의 비율은 3:2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1:2.2의 역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유한 도서관은 한 곳도 없다. 건물면적 4,950㎡ 이상의 대규모 도서관은 24개관인데 비해 좌석수 1,200석 이상의 도서관은 36개관이나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도서관을 대비하면 건물면적에 비해 열람석은 150%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와 같은 수치는 집은 작아도 열람석만은 많이 갖추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산물이라 판단된다. 심지어는 개가자료실을 축소하고 일반열람실을 증설, 좌석수를 늘임으로써 보다 큰 규모의 도서관으로 평가받아 높은 직급의 관장직위를 확보하려는 행태마저 일어나고 있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도서관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평가기준이 좌석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빚어진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장서수가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좌석수를 보유한 것을 보면 그동안 도서관 운영방향이 자습실 운영에 상당부분 의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이용통계를 분석하면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

1995년 전국공공도서관 이용현황⁴⁾에 의하면 전국 공공도서관 연 이용자는 4,374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600만명(60%)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 일반인은 1,747만명(40%)에 불과하다. 일반인들 중에도 상당부분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정작 일반인은 10%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

다.

한편, 연 이용책수는 3,800책에 불과하여 1인당 0.87책만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대출책수는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 등을 포함하여 총 1,268만책으로 이용자 1인당 0.29책, 국민 1인당 0.28책에 해당할 뿐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한 이용자가 만약 3책을 이용했다면 전체 이용자의 70% 정도는 도서관을 자료와 상관없이 드나들든 즉, 좌석만을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향유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목적이 무색할 지경이다.

불행하게도 필자는 좌석수에 관한 외국도서관의 현황비교에 도움이 될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꽤 상세한 자료들속에는 장서수·서가 길이·직원숫자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 좌석수에 관련된 종합적 자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도서관의 가치와 평가와 자료이용에 있는 것이 좌석수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이점 또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씁쓸한 여운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센터라는 도서관 본래의 제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자료이용환경 개선』이라는 기치아래 도서관에 내재된 기본적인 현실적 인식타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서 그 경과를 보고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의 그러한 노력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4) 讀書振興을 위한 年次 報告書, 1996. 文化體育部, p114

3.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떻게 바뀌었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도서관문화를 일구어 가는 중추적 기관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는 전체 도서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부방으로 대변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료이용중심의 정보센터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차원에서 탈공부방화 계획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공동과 남산에 위치했던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도서관 이용자의 30% 정도만이 서고 속의 자료를 이용했을 뿐, 대부분의 시설은 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왔다.

1988년 현 건물로 신축이전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80년대 이후 출판된 일반도서를 전면 개가제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개가된 자료도 적고(약

12만책) 오래된 이용습관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1991년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면서부터 대학입시 재학생으로 들끓던 도서관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일반열람실을 일부축소하고 개가자료실을 확충하는 한편, 개인휴대품 보관함을 설치, 이용자의 가방·책 등의 자료실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이용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자료이용중심도서관으로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5개실(812석)의 일반열람실이 존재했던 까닭에 1일 평균 이용자 3,500명중 1,100명정도(30%)는 여전히 도서관을 자신들의 자습공간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표1 참조) 한편 13개 자료실은 늘어난 자료와 이용자들로 인하여 공간이 좁아져 이용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자료실 증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96. 5월에 일

〈표 1〉 연도별 이용현황(국립중앙도서관)

년도별	이용자수(만명)				이용책수(만책)	
	자료실	열람실	계	열람실 이용비율	총책수	1인당 이용책수
1991	45	36	81	44%	170	2.1
1992	56	33	89	37%	223	2.5
1993	60	32	92	35%	269	2.9
1994	69	33	102	32%	346	3.3
1995	80	35	115	30%	527	4.5

반열람실 폐쇄를 요체로 하는 도서관 탈공부방 선언을 하게 되었고,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기자간담회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의 일반열람실을 자료실로 전환하고 이를 보다 전문화하여 20개(표 2참조)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정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

템도 구축하였다.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울만큼 숏한 난제가 있었다. 일반열람실 폐쇄를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도서관 데스크에 쇄세없이 쏟아졌고 일부 이용자는 반대전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되었던 현상들은 도서관 전직원과 많은 도서관인의

〈표 2〉 개선 이후의 자료실 현황

층 별	현 행(13개)	개선후(20개)
1층	이용상담실	정보봉사실
2층	제1~2열람실	역사·지리자료실, 지도자료실, 어학자료실, 문학자료실
	제3~5열람실	
3층	연속간행물실 신문자료실 기업정보자료실 어문학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신문자료실 기업정보자료실 정부간행물실 국가별자료실
4층	인문과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철학자료실, 종교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
5층	학위논문실 전자도서실 도서관문화자료실 특수자료실	학위논문실 전자논문실 예술·체육자료실 문헌정보학자료실 특수자료실
7층	고전운영실	고전운영실

성원으로 원만히 수습되었고 금년 9월9일을 기해 드디어 자료이용이 중심이 되는 정보센터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4. 말을 맺으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도서관자료의 개방(개가제·대출제) 추세에 따라 장서수와 자료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은 지극히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도서관이 자료이용이 중심이라는 인식으로 뒤바꾸어 놓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정보환경의 변화를 통한 미래의 역동적인 도서관 활동을 꿈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서관 환경과 도서관 즉 공부방이라는 고질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믿는다.

○도서관 자료는 정책당국에 대하여 자료구입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배정을 요청함으로써,

가장 보편적이고 친근한 인쇄매체부터 충실히 갖추어(최소 국민 1인당 1책정도) 자료 이용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는 이용자가 가장 편리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열람실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자료실을 늘리는 자료이용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원수는 우선 법적 기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촉구하는 한편, 사서 스스로도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연찬을 충실히 하며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서관에 대한 인식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현실인식의 바탕없이는 첨단정보 활용이라는 도서관 환경에로의 이행도 결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① ③ ⑦ - ⑦ ⑩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전화 : 535-4868 · 595-3753, FAX : 535-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